

##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독립행정법인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The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 JILPT)는 2003년 10월 1일에 발족되었다.<sup>1)</sup> 새 기구의 설립은 일본 내외의 노동문제와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활용하여 관련 행정직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시행함으로써 노동정책의 입안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고 근로자복지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고실업률, 실업기간의 장기화 등 심각한 고용현황에서 다양한 노동·고용면의 구조변화가 발전하고 있다. ① 기업내부에서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② 기업의 경영구조·행동의 변화에 따르는 고용관리와 능력개발의 변화, ③ 근로자의 의식 및 수요의 변화, 특히 청년층 취업을 비롯한 변화와 생활중의 여러 과제와 취업의 양립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이 바로 이런 예이다. 날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문제들을 다양한 정책, 제도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자는 오노 아키라 이사장의 이념하에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는 노동정책연구소, 노동대학교, 법인본부 사무국 3자의 공동 노력으로 일본의 노동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 <편집자주>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은 200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IRA 2003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의 사무국으로 2001년부터 이를 준비해 오고 있다. 회의 기간 중 특별 세션으로 '세계노동포럼'이 열리며, 세계 주요 노동관련 연구기관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국제노동브리프』는 '세계노동포럼'에 참여 의사를 밝힌 주요 해외연구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1) 2003년 10월 1일 독립행정법인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발족과 동시에 일본노동연구기구가 해산되었다. 일본노동연구기구는 1990~2003년까지 노동 관련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깊이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근로복지의 향상과 노동문제 연구의 발전 등에 기여하여 왔다.

## ■ 노동정책연구소

노동정책연구소는 크게 핵심적인 연구부문과 응용연구 부문으로 나뉘는데 핵심적인 연구부문에는 노동경제 분석, 노사관계·노동법, 고용전략이 포함되고 응용연구 부문에는 근로조건·취업환경, 기업과 고용부문, 인재육성, 일과 생활 등이 포함된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노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① 고용정책의 체계적인 실시와 평가를 축으로 하는 고용전략을 구축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는 고용창출
- ② 청년과 중·고령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응과 직업정보시스템 등 노동시장의 수급조절기능의 집중화
- ③ 기업의 구조 및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면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능력개발의 기반을 조정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시스템의 재구축
- ④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구축과 그 중에서 불가결한 요소인 다양한 근로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이 외에도 연구소에서는 국내외 노동정책 관련 정보와 각종 통계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조사연구 활동의 근거로 한다. 동시에 국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시야에 입각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연구프로젝트

- 실업의 지역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시스템의 재구축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고용전략방식에 관한 연구
- 다양한 근로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고용환경 및 안전망에 관한 연구
- 기업의 경영전략과 인사처우제도 등 종합분석에 관한 연구
-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노동시장의 기반정비 방식에 관한 연구
-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
- 종합적인 직업정보 DB개발에 관한 연구
-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한 중·고령 이직자의 재취업지원 등에 관한 연구

## ■ 노동대학교

노동대학교는 노동행정인원의 자각을 양성하고 해당 직무와 책임 집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자세를 부여함으로써 자격 향상, 업무집행 능력과 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노동행정 관련 직원에 대하여 각종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1964년에 노동연수소(노동성의 부속기관)의 설립이 그 시작이었다.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일부로서 노동대학교에는 교육 부분 외에도 직무·임금 분석과 직업상담·취업지원에 관한 연수·연구 부문이 포함된다. 현재 노동대학교에서는 주로 후생노동성 및 각 도도부현의 노동행정 담당직원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대학교에서는 연수내용에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반영하는가 하면 연수장을 통하여 노동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제1선 노동행정기관 담당자의 문제의식을 연구내용에 반영하기도 한다. 노동대학교는 연간 4,000여명의 직원을 대

상으로 40여종의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노동 행정의 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 조사연구 결과 등 성과의 보급과 정책적인 기여

연구 성과는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서는 노동정책의 기획·입안에 기여하고 국민 각층에서의 정책토론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정책연구보고서,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발표함과 동시에 노동정책포럼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열린 정책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 ● 조사연구의 성과

보고서, 노동정책 레포터, 자료집, 전문월간지 <일본노동연구잡지> 등

### ● 국내외 노동정책정보 등의 수집성과

뉴스레터<Business Labor Trend>, e-mail 매거진, DB와 홈페이지(<http://www.jil.go.jp>)

### ● 정책토론의 장의 제공

노동정책포럼, 국제심포지움, 기타 포럼 등